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2. 3. 31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2. 3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동향	02
2. 국외 항만 동향	09
3. 품목 및 산업 동향	14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 부산항, 국내 항만 최초 LNG 로드트랙터 도입
- 2 인천항, '21년도 항만배후단지 최대 처리실적 기록
- 3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사업 본격 추진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1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유럽 알루미늄 수출 급증
- 2 LA항·롱비치항 적체 감소로 적체요금 부과시점 추가 연기
- 3 호주, 악천후로 곡물 수출 지연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1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 컨테이너 공급 차질 우려
- 2 국제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시멘트 공급 차질 예상
- 3 국제 원유시장, Brent, WTI, Dubai, Oman 유가 모두 상승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만공사(BPA),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시행¹⁾

- » BPA는 2월 25일부터 2주간 약 6,300억 원 규모의 부산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 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를 시행함
 - VE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협력을 통해 설계내용을 분석하고 경제성·시공성 등을 감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성능 향상,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임
 -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설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화확발파 등 6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계획임
- » BPA는 지난해 VE를 수행한 5건의 사업에 대해 총 6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해당 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 운영 및 품질향상을 이룰 계획임

② 국내 항만 최초 LNG 로드트랙터 도입²⁾

- » BPA는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LNG 로드트랙터 도입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힘
 - 지난해 12월 해당 시범사업을 위해 (주)동원물류, (주)에이티유 로지스틱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함
 - BPA는 해당 운송사에 LNG 로드트랙터 신규 차량 구매 및 운송 지원 비용을 업체당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임
 - 투입될 로드트랙터는 460마력의 대형 트랙터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 » 향후 1년 동안 해당 LNG 로드트랙터 운행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2.24.),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7282\(2022.03.14 검색\)](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7282(2022.03.14 검색))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2.25.),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7285\(2022.03.14 검색\)do?mode=view&mCode=MN1445&idx=27282\(2022.03.14 검색\)](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7285(2022.03.14 검색)do?mode=view&mCode=MN1445&idx=27282(2022.03.14 검색))

2) 인천항

① 인천항만공사(IPA), 해양수산부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³⁾

- » IPA는 '21년도 8월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1년 9월부터 '22년 2월까지 사업계획의 수정·보안 작업을 수행함
 - 이후 해양수산부와 실시 협상을 추진하여 양 기관이 실시협약 체결을 도출했으며, 실시협약에는 해당 재개발사업에 따른 원도심 활력 제고와 재정지원 등이 사업추진 방향에 포함되어 있음
 -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IPA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할 계획임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3.02.),
[https://www.i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1030&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2.03.15 검색\)](https://www.i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1030&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2.03.15 검색))

② 인천항 '21년도 항만배후단지 최대 처리실적 기록⁴⁾

» IPA에 따르면 '21년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47만 7천 TEU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함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20년도 39만 2천 TEU 대비 21.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물동량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는 약 2,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1년도 임대료 감면(106억 원)과 물류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등이 물동량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하역정체 현상과 같은 물류 공급망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한 것은 임시선박 투입(41회), 예선을 활용한 특별도선제 시행 등 항만하역과 물류기능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3.08.),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1082&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 (2022.03.15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사업 본격 추진⁵⁾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올해 국내 최초 전 영역(안벽, 이송, 야드)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힘

-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사업'은 자동화장비 제조·설치, 기반공사, 각종 용역(설계, 감리) 및 부대업무로 구성되며, 총 6,915억 원 규모의 사업임
- '21년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주관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통해 탄기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기반공사 진행이 결정됨
- 이에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3월 중 발주할 예정이며, 그간 국내 시공사의 기술을 활용한 설계 및 적정 공기 산출, 고난도·신기술 적용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임
- YGPA는 본 사업을 통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 확대를 목표로 하며, 추후 국내 타항만(부산 진해신항, 인천신항 등)에 시공노하우 전수 및 공유로 한국형 자동화항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3.08.),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128&category=\(2022.03.14.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128&category=(2022.03.14.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3차년도 시행⁶⁾

- » UPA는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3차년도 운영 계획을 확정함
- 울산항 VSR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위치한 장생포 매암부두 기준, 반경 20해리 내 해상에서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여 입항하는 선박의 항비 중 입출항료를 최대 40%까지 환급 방식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임
- VSR 대상 선박은 입항 외항선 6종을 대상으로 하며, 컨테이너선, 자동차 운반선은 12노트 이하 운항시 입출항료 30%,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컬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은 10노트 이하 운항시 입출항료 15%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되돌려 줌
- 미세먼지 집중 관리기간인 '22년 1~3월, '22년 12월 등 4개월은 계절관리제로 감면율을 10% 추가 적용함
- 특히, 울산항 특성(액체화물 비중 80%)을 반영하여 원유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컬운반선 등 3종에 대해 입항건마다 권고속도 준수 시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포함한 규정 개정안을 2월 24일 열린 제154차 항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 울산항 VSR 인센티브 총액은 5억 원이며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검증 후, 차년도 1분기 내에 지급할 예정임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2.28.),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lId=001005002001000000&dataId=14711\(2022.03.14.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lId=001005002001000000&dataId=14711(2022.03.14.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22년 1월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⁷⁾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1월 한달 간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87,129TEU로 전년 동기(72,897TEU)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밝힘
- 전체 화물량은 전년 동기(1,011만 4천 톤) 대비 9.3% 증가한 1,105만 9천 톤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액체화물이 전년 동기(338만 톤) 대비 2.4% 감소한 330만 톤을 기록한 반면, 철재류는 전년 동기(372만 9천 톤) 대비 16.0% 증가한 432만 6천 톤을 기록함
- 또한, 자동차 물동량은 전년 동기(12만 6천 대) 대비 12.7% 증가한 14만 2천 대를 기록하며 전체 물동량 증가에 기여함
- 전반적으로 '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했던 화물 물동량이 '21년도에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22년에 들어서도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7)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02.24.), [https://pyeongtaek.mof.go.kr/ko/board.do?menuidx=2127&bbsidx=79518\(2022.03.10. 검색\)](https://pyeongtaek.mof.go.kr/ko/board.do?menuidx=2127&bbsidx=79518(2022.03.10. 검색))

6) 포항항

① 중소 해운사에 개방된 포항신항 유류 선석, 30회 이상 활용⁸⁾

» 포항제철소가 지난해 8월 중소 해운사에 개방한 포항신항 52번 유류 선석이 현재 긴급 상황 발생 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최근 선원들의 코로나19 검사 등으로 선박을 하루 이상 접안하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해운사들은 작업 지연과 선석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 특히 소형선의 경우 통상 접안 시간이 12~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코로나19 검사, 선박 수리 및 검사 등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을 할 때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임
- 포항신항 52번 선석은 1만 톤 이하의 선박이 이용할 수 있으며, 부두 안쪽인 내항에 자리 잡고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선박 수리와 원료 공급 작업 진행이 가능함
- 해당 선석은 지난해 8월에 개방된 이후 태풍으로 인한 기상 악화, 부상 선원 치료, 명절 기간 선원 상륙 등 다양한 상황에 현재까지 30회 이상 활용된 것으로 확인됨

8) 경북매일(2022.03.15.),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017>(2022.03.17. 검색)



자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KMI 재작성, <https://pohang.mof.go.kr/ko/page.do?menuidx=2759>(2022.03.17. 검색)



7) 대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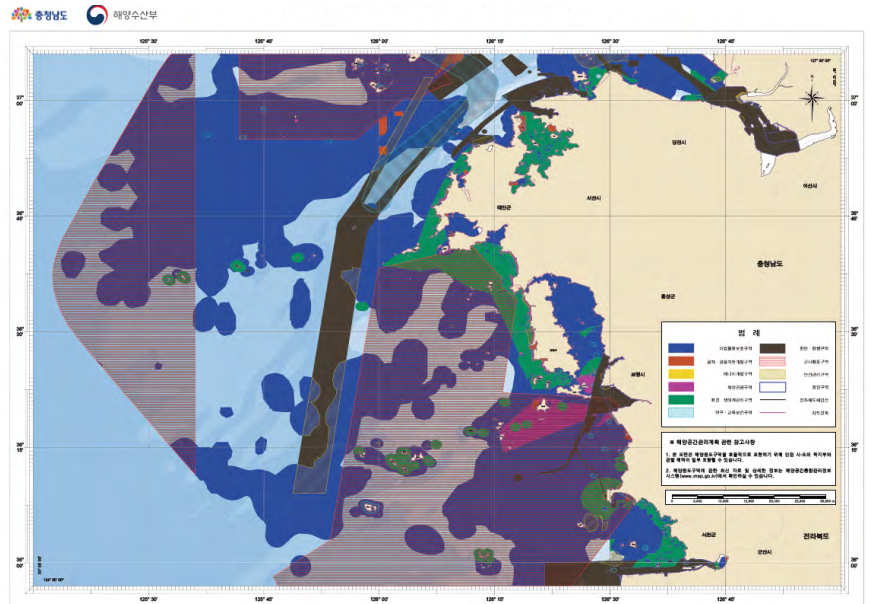
① 충청남도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 시작⁹⁾

»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는 2월 21일 충청남도 관할 영해 7,645km²를 9개 구역으로 나눠 통합·연계 관리한다고 발표함

- 충남도와 해수부는 도내 해양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 평가, 법·제도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함
- 대산항 및 당진항 등의 무역항과 연안항이 위치한 충남도 해양공간은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이 많아 자연·생태자원이 풍부하며, 다양한 해양관광·레저 산업 개발이 진행되는 등 해양공간 이용·개발·보전 활동이 공존하고 있음
- 충남도와 해수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어업활동보호구역(45.2%), 군사활동구역(44.7%), 항만·항행구역(8.5%), 환경·생태계관리구역(7.9%), 연구·교육보전구역(3.1%), 안전관리구역(2.4%), 해양관광구역(1.6%),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0.4%), 에너지개발구역(0.1%)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¹⁰⁾을 지정함
- 아울러 지정 용도구역별 적합한 활동을 명시하고 용도구역에 적합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조정·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개별 법령에 따라 이용·개발·보전이 이뤄져 발생했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충청남도청 보도자료(2022.02.20),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url=/integratedBoardView.do&board_seq=395396&field03=in&cdat=20220220&mnu_cd=CNMMENU02362&searchCnd=0&searchWrd=%EB%8C%80%EC%82%B0%ED%95%AD&srtdate=20180101&enddate=20220315&searchCnd_4=in&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600\(2022.03.14. 검색\)](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url=/integratedBoardView.do&board_seq=395396&field03=in&cdat=20220220&mnu_cd=CNMMENU02362&searchCnd=0&searchWrd=%EB%8C%80%EC%82%B0%ED%95%AD&srtdate=20180101&enddate=20220315&searchCnd_4=in&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600(2022.03.14. 검색))

10)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3항에 의거,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이 가능함



자료: 충청남도청 보도자료(2022.02.20),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url=/integratedBoardView.do&board_seq=395396&field03=in&cdat=20220220&mnu_cd=CNMMENU02362&searchCnd=0&searchWrd=%EB%8C%80%EC%82%B0%ED%95%AD&srtdate=20180101&enddate=20220315&searchCnd_4=in&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600\(2022.03.14. 검색\)](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url=/integratedBoardView.do&board_seq=395396&field03=in&cdat=20220220&mnu_cd=CNMMENU02362&searchCnd=0&searchWrd=%EB%8C%80%EC%82%B0%ED%95%AD&srtdate=20180101&enddate=20220315&searchCnd_4=in&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600(2022.03.14. 검색))

8) 동해·목호항

① 동해항 수출실적 증가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북방교역 중단 우려¹¹⁾

» '22년 1월 동해항 수출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117% 상승한 6,730만 달러를 기록함

- 對러 수출은 1,473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010% 폭등세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 수출액은 합금철 수출이 호조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함
- 對러 수출 품목은 건설기계, 차량, 미용용품 등이며 화장품, 삼푸, 미용기기와 같은 미용용품 수출은 244만 달러를 기록하여 단일품목으로는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 러시아 크래프의 수입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22년 1월 수입액은 4,453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함

» 한편 최근 한국 정부가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을 결정하면서 동해항 북방교역에 대한 우려가 나옴¹²⁾

- 현재는 러시아 교역에 문제가 없지만, 동해항을 이용하는 주요 상선들과 화주들은 3월 이후 對러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함

11) 동해시 보도자료(2022.03.03.), https://www.dh.go.kr/pages/sub.htm?mode=view&mv_data=aWR4PTEwMjE4Jm5hd19jb2RlPWRoMTQ3MDc1Nzc4MjZkdGFydFBhZ2U9MjZsZXN0Tm89OTkxNyZ0YWJsZTJjc19YnNfZGF0YV9yZXBvcnQmY29kZTlyZXBvcnQmY2VhcnNoX2l0ZW09JmNlYXJjaF9vcnRlZ0mb3JkZXJfbGldD0mbGlzdF9zY2F5ZT0mdmld19sZXZlbD0mdmld19jYXRlPSZ2aWV3X2NhdGUyPSZwYXJ0PQ==(2022.03.16. 검색)

12) 매일경제(2022.02.24.),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2/178990>(2022.03.16. 검색)

9) 목포항

① 목포시, 목포항에 세계 섬 허브 클러스터 구축 추진¹³⁾

» 목포시는 한국섬진흥원과 '다도해의 모항' 목포항에 '세계 섬 허브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임

- 이번 사업은 목포항에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목포를 섬 발전 교류·소통의 메카이자 서남권 섬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임
- 주요 계획으로 목포항 인근 부지를 활용한 섬 연구기관 유치, 세계 섬 테마공원 및 아카데미 센터 조성 등이 포함됨
- 이를 위해 목포시와 한국섬진흥원은 매월 정기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구체화, 전라남도 등 관련 기관 참여 확대,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임

13) 목포시청 보도자료(2022.02.25.), https://www.mokpo.go.kr/www/open-administration/city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idx=494261&page=2&mode=view(2022.03.10. 검색)



10) 군산항

① 전라북도, 군산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유치¹⁴⁾

» 전라북도는 지난 3월 8일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새만금항 수산식품 클러스터 부지에 조성할 계획임

-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수산물 가공분야에 적용해 스마트 창고, 기술개발(R&D),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집적한 산업단지임
- '25년까지 총 사업비 380억 원이 투입되어 새만금항 수산식품 클러스터 부지에 아파트형 임대 가공공장, 수산가공 연구개발센터, 냉동·냉장 유통센터 등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임
-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만금 신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14) 군산시 보도자료(2022.03.08.), <http://eminwon.gunsan.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 (2022.3.15 검색)

11) 마산항

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항 항만순찰선 신규 취항¹⁵⁾

»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가 장착된 항만순찰선 '안정누리호'가 2월 22일 마산항에서 취항함

- 안정누리호는 해양수산부 최초 친환경 항만순찰선으로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를 9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음
- 길이 24m, 폭 5.1m, 넓이 2.2m 규모의 41톤급 알루미늄 선박으로 건조돼 최대 13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최대 속력 37노트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안정누리호는 마산항 항계 밖 항만시설(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및 수상 구역에 대한 개항 질서·해상교통안전전을 위해 투입될 예정임

15) 경남연합일보(2022.02.22.),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114> (2022.03.16.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유럽 알루미늄 수출 급증¹⁶⁾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원자재 거래상들이 러시아산 물자에 의존하는 유럽업체들에게 알루미늄 수출을 진행함
 -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겨울 동안 치솟는 에너지 비용 때문에 생산량을 억제했으며, 현재 알루미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3개월 인도가격 기준 알루미늄 가격은 톤당 3,8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품귀 현상 심화로 추가 가격 폭등이 예상되고 있음
-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알루미늄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알루미늄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며, 런던과 상하이 선물 가격 격차 급등으로 반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
 - 일반적으로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훨씬 더 많으나 중국 정부는 국내 제련업체들이 자국 수요보다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금속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원자재 수출에 15% 관세를 부과하여 국외 반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로테르담항과 같은 항만에서 스팟성 알루미늄을 얻기 위해 구매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추가 보험료가 높아지면서 상하이와 유럽에서의 선물 가격 격차가 급등하여 이례적으로 유럽으로 반출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구리와 아연도 중국 제련업체들이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수출추세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나 아시아의 재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출 창구가 곧 닫힐 수 있다고 전망함

② '22년 1월 중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¹⁷⁾

- » '22년 1월 중국 항만의 총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약 13억 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1.6% 증가한 2,420만 TEU를 기록함
 - 총 물동량 기준 잉커우항, 련윈강항, 베이부완항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6%, 16.7%, 11.0% 증가한 반면 선전항, 광저우항은 각각 12.1%, 8.5% 감소함
 -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는 다롄항, 련윈강항, 상하이항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6.0%, 15.0%, 7.7% 증가한 반면 잉커우항, 선전항, 광저우항은 각각 13.3%, 9.2%, 5.9% 감소함

16) The Economics Times(2022.03.05.),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small-biz/trade/exports/insights/ukraine-war-spurs-shipments-of-aluminum-from-china-to-europe/articleshow/90009073.cms>(2022.03.14. 검색)

17) Hellenicshipping News(2022.02.28.),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hina-ports-container-volume-rises-1-6-in-january-of-2022/>(2022.02.28. 검색)

'22년 1월 중국 주요 12개 항만 물동량

항만	총 물동량 (만 톤)		컨테이너 물동량 (만 TEU)	
	1월	YoY %	1월	YoY %
다롄항	2,839	11.0	34	36.0
톈진항	4,612	1.3	162	6.6
칭다오항	5,456	4.2	208	6.1
르자오항	4,772	5.1	45	4.7
렌윈강항	2,509	16.7	46	15.0
상하이항	6,135	3.1	435	7.7
닝보-저우산항	10,891	3.7	297	2.8
샤먼항	1,947	7.3	105	4.0
선전항	2,294	-12.1	246	-9.2
광저우항	4,960	-8.5	191	-5.9
베이부완항	3,207	11.4	49	4.3
잉커우항	2,142	18.6	39	-13.3

자료: Hellenicshipping News(2022.02.28.),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hina-ports-container-volume-rises-1-6-in-january-of-2022/> (2022.03.15. 검색)

2) 아시아

① 일본, '21년 기준 중국행 컨테이너 교역량 4.8% 감소¹⁸⁾

» '21년 기준 일본의 중국행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은 총 941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으나, 교역금액은 18.3% 증가한 9조 5,790억 엔을 기록함

- 일본 재무부에 따르면, '21년 12월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는 83만 2,08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감소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반면 교역금액은 10.1% 급증한 9,072억 엔으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컨테이너의 경우 185만 6,852톤으로 8.4% 증가해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교역금액 또한 1조 2,990억 엔으로 20.5% 급증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② 인도의 문드라항, 원유시설 증강¹⁹⁾

» 인도의 아다니그룹 산하 APSEZ(Adani Ports and Special Economic Zone)은 인도석유공사(IOCL)와 문드라항의 원유저장·처리능력 증강을 합의했다고 밝힘

- 인도석유공사는 현재 문드라항에 탱크 12기(저장능력 총 72만 kℓ)를 보유하고 있으며, 용량 6만 kℓ의 원유탱크 9기를 추가 증설할 계획임
- 증설 후 저장능력은 126만 kℓ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드라항의 원유처리능력은 연간 1천만 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더불어 문드라와 파니팻을 잇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연간 수송능력 1,750만 톤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며,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원유탱크 및 파이프라인 증설을 위해 약 900억 루피(약 1조 4,634억 원)를 투입하는 안건이 통과됨

18) JIFFA(2022.03.01.), [https://www.jiffa.or.jp/en/news/entry-7570.html\(2022.03.15. 검색\)](https://www.jiffa.or.jp/en/news/entry-7570.html(2022.03.15. 검색))

19) LiveMint(2022.03.08.), [https://www.livemint.com/companies/news/indian-oil-to-build-more-crude-oil-tanks-at-adani-s-mundra-port-11646737046691.html\(2022.03.15. 검색\)](https://www.livemint.com/companies/news/indian-oil-to-build-more-crude-oil-tanks-at-adani-s-mundra-port-11646737046691.html(2022.03.15. 검색))

④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항, 러시아행 컨테이너 물동량 적체현상 심화²⁰⁾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로 향하는 주요 컨테이너 노선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치타공항 창고 및 공장부지에 러시아행 화물들이 적치됨
- 방글라데시의 BICDA(Bangladesh Inland Container Depot Authority)에 따르면 컨테이너 166TEU가 러시아로 선적되지 못하고 치타공항에 쌓이고 있음
 - BICDA는 글로벌 선사들이 러시아 항만의 기항을 기피하거나 노선 서비스를 중단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행 화물들이 방글라데시 항만에 적체되고 있다고 밝힘
 - 방글라데시는 러시아에 주로 의류를 수출하고 곡물을 수입하며 연간 교역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이름
 -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선사들이 러시아행 신규 선박 예약을 받지 않고 있어 방글라데시의 많은 의류공장들이 러시아의 주문량 생산을 늦추거나 중단함

20) Container News(2022.03.07.),
<https://container-news.com/russia-bound-containers-make-stockpile-in-chittagong-depots/> (2022.03.15 검색)



3) 미주

① LA항·롱비치항 적체 감소로 적체요금 부과시점 추가 연기²¹⁾

- » 미국 샌페드로만에 위치한 LA항과 롱비치항이 터미널에서 장기 적체되는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추가로 연장함
- LA와 롱비치항은 터미널에서 장기간 적체된 화물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적체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행 준수를 위해 11월 15일로 연기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을 연기하고 있음
- 3월 4일 기준, 당초 적체요금 부과시행을 발표했던 10월 말 대비 장기 적체화물의 양은 64% 감소했으며, 향후 장기 적체화물의 증감 여부를 확인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지난해 10월 말, 수입 컨테이너의 약 40%가 최소 9일 동안 터미널에 체류했으며,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 항만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장기 적체화물에 대한 적체요금 부과 시행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음
- 적체요금 부과가 시행되면 트럭과 철도로 운송하기로 한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9일 이상 머물 경우, 적체요금은 컨테이너당 100달러에서 시작하여 매일 100달러씩 인상되어 부과될 전망이다

21) Daily Breeze(2022.03.04.), <https://www.dailybreeze.com/2022/03/04/ports-of-la-long-beach-hold-off-on-cargo-fee-again/> (2022.03.14. 검색)

4) 유럽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주요 항만 물류난 가중²²⁾

- » 우크라이나항 화물이 중동 및 지중해 등의 대체 항만으로 몰리고, 항만에서 러시아항 화물의 하역이 거부됨에 따라 유럽 주요 항만들의 적체가 극심한 상황임
-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체 항만의 70% 물동량을 담당하는 오데사항이 폐쇄되면서, 기존 오데사항 기항 선박들은 포트사이드(이집트), 코르페즈(터키), 콘스탄차(루마니아), 트리폴리(레바논), 피레오포(그리스) 등의 대체 항만으로 일시 양륙 중임
-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MSC, 머스크, CMA-CGM, Hapag-Lloyd 등의 유럽계 선사들을 포함하여 ONE, HMM 등 많은 선사들이 러시아노선 운항을 중단함
- 일부 북유럽 항만에서는 러시아 화물 하역 거부가 나타나고 있어 혼잡이 발생하고 있고, 하역되지 않는 화물이 항만에 장기 체류하면 항만 혼잡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러시아에 취항하던 대부분의 항공화물 서비스도 중단되어 해로와 공로 모두 물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경우 정상 운행되고 있으나, 모든 구간에서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22) 코리아워킹가제트(2022.03.14.),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3611 (2022.03.17.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악천후로 인해 양곡 수출 지연²³⁾

-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호주산 양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동부 해안의 악천후와 서부 항만의 혼잡으로 인해 곡물 공급에 차질이 생김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New South Wales)주의 폭풍과 홍수로 인해 주요 양곡 수출항인 뉴캐슬(Newcastle)항과 캠블라(Kembla)항이 선적을 중단함
- NSW 전역의 폭우로 인해 캠블라항의 철도 운송이 지연되어 양곡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뉴캐슬항은 접안에 어려움이 있어 수출 지연이 발생함
- 브리즈번(Brisbane)항의 컨테이너터미널은 홍수로 인해 2월 28일 폐쇄된 후 운영을 재개했지만, 수출 제한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함
- 동호주의 브리즈번항, 뉴캐슬항, 캠블라항은 '22년 10월까지 여분의 선적 용량이 없으며 서호주의 제럴턴(Geraldton)항, 퀴나나(Kwinana)항, 올버니(Albany)항 및 에스퍼런스(Esperance)항은 '22년 10월까지 54만 톤의 추가 선적을 제공하지만 여분의 선적 할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3) Argus media(2022.03.14.), <https://www.argusmedia.com/en/news/2311299-flooding-delays-australias-grain-exports>(2022.03.16. 검색)

6) 아프리카

① 모로코 탕헤르 메드(Tanger Med)항, '21년 1억 2천만 달러 민간 투자 유치 성과²⁴⁾

- » '21년 탕헤르 메드항은 28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1억 2천만 달러의 민간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둠
- 주요 투자업체는 일본 Nippon Express(물류), 벨기에 Ravago(플라스틱 제조), Mondi(포장 및 제지), Boa(식품 제조) 및 Sonofet(단열 패널 제조)이며 영국, 미국, 프랑스 등 11개 국가의 민간 단체 및 기업이 탕헤르 메드항에 투자함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4,397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탕헤르 메드항의 비즈니스 규모는 '20년(68억 달러) 대비 26% 증가한 86억 달러를 달성함
- » 탕헤르 메드항의 물동량은 '19년 6,500만 톤, '20년 7,500만 톤에 이어 '21년 1억 100만 톤으로 급증함²⁵⁾
- 탕헤르 메드항은 모로코의 북쪽 해안, 지중해에 위치하며 '21년 아프리카의 총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23%를 처리함
- '21년 모로코 전체 항만물동량의 50% 이상을 처리하였으며 '20년에 비해 24% 증가하였음

24) The North Africa Post(2022.03.04.), <https://nortiafricapost.com/55965-tanger-med-port-attracts-new-120-mln-private-investments.html>(2022.03.16. 검색)

25) Africanews(2022.02.17.), <https://www.africanews.com/2022/02/17/throughput-growth-in-moroccan-port-tanger-med/>(2022.03.16.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 컨테이너 공급 차질 우려²⁶⁾

- » 항만물류 컨설턴트 업체인 Container XChange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컨테이너 공급망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함
 - 현재 흑해와 아조프해 일부 지역의 경우 선박에 대한 미사일 공격, 선박 억류 등의 위험성으로 통행이 불가능함
 - 우크라이나 항만인 오데사항과 마리우폴항의 경우 공격으로 인해 폐쇄되면서 컨테이너 교역이 중단, 화물과 장비 등이 항만에 쌓여있는 상황임
 - 이러한 컨테이너 적체 현상은 해당 지역에서 점차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글로벌 선사인 MSC와 머스크는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항만을 오가는 모든 선박 운송을 중단하였으며 그 외 선사들도 이를 따르기 시작함
- » 분쟁의 연쇄작용 효과로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글로벌 병목현상에 인플레이션 및 지연 등이 추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와 도로 등이 폐쇄되면서 아시아 밖으로의 해상 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컨테이너 가용성에 대한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만과 지역에 따라 그 수준은 다를 것으로 보임
 - 또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 제재로 인해 러시아 및 러시아 기업들은 해상 무역에서 향후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결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6) Cycling Industry News(2022.03.09),
<https://cyclingindustrynews/russia-ukraine-conflict-to-bring-more-disruption-to-container-supply/>(2022.03.14 검색)



2) 양곡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옥수수 수입 차질 예상²⁷⁾

-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주요 생산 및 수출국으로 '21/22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14.0%(러시아 9.7%, 우크라이나 4.3%), 수출량의 28.5%(러시아 16.9%, 우크라이나 11.6%) 비중을 차지함
- » 세계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의 곡물 수출제한은 세계 밀 공급 차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국가로 수요가 이동하여 세계 곡물가 상승을 유발시킴
 - '22년도 1월 러시아 밀 수출가격은 전년 대비 16.5% 상승하였으며 수출 경쟁국인 우크라이나(12.8%)와 루마니아(14.4%)보다 큰 수출가격 상승폭을 기록하였음
 - 흑해지역은 국제 곡물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될 경우 국제곡물 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우리나라의 밀과 옥수수 수입량 중 흑해지역²⁸⁾의 비중은 18.4%로, 밀 수입량(28.3%)은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옥수수 수입량(14.2%)은 식용과 사료용 모두 수입되고 있음
 - 사료용 옥수수는 식용 대비 다변화가 용이하여 수입국별 수입량의 편차가 크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식용 옥수수의 50.7%가 흑해지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특히 non-GMO 옥수수의 대부분을 흑해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될 경우 옥수수 수입에 차질이 예상됨

27)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 월보 3월호 (2022.02.28.),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468/page/1 (2022.03.15 검색)

28)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주변국(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3) 시멘트

① 국제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멘트 공급 차질 예상²⁹⁾

»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시멘트 생산의 핵심 원자재인 국제 유연탄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톤당 403.41달러로 급등하여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³⁰⁾

- 시멘트 제조사들은 주로 강원 동해안에 위치하여 호주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산 유연탄을 사용함
- '21년 주요 시멘트 업체의 러시아산 유연탄 의존도는 총수입량 364만 톤 중 75%에 달하는 272만 톤임(92만 톤은 호주산 사용)

» 기록적인 유연탄 가격 폭등세로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본격적으로 출하를 제한함³¹⁾

- 국내 시멘트 제조사가 보유 중인 유연탄 재고량으로는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 시멘트 공장 가동률은 60%까지 감소함
- 국내 7개 시멘트 제조사들이 보유한 총 시멘트 보유량은 65만 톤이며 적정 재고량인 125만 톤의 절반에 불과함
- 하루 출하량이 20만 톤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재고량은 3일 치에 불과함

» 러시아산 유연탄 수급이 어려워진 시멘트 업계는 대규모 건설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함

29) 한국경제(2022.03.0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044533>(2022.03.16. 검색)

30)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2.03.14.),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2.03.16. 검색)

31) 대한경제(2022.02.1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151131326560926>(2022.02.1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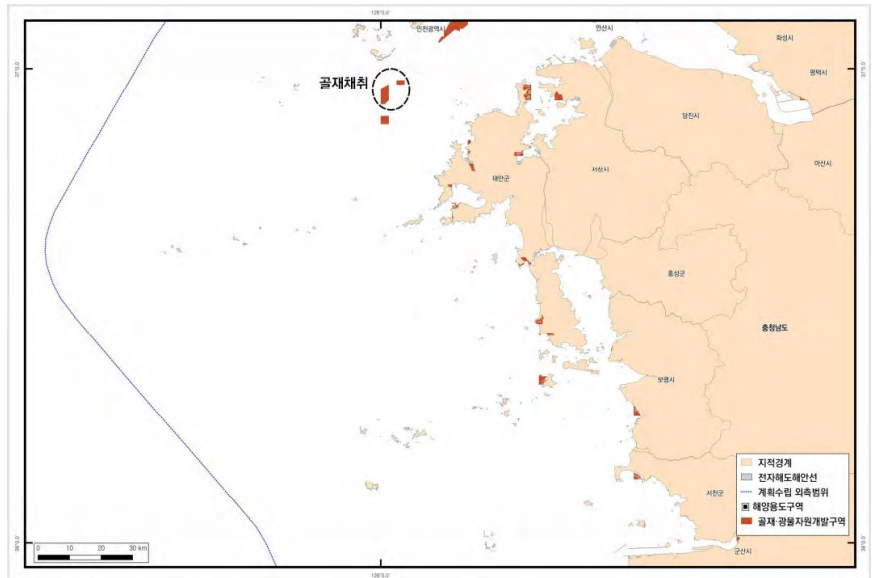


4) 모래

① 해양수산부(해수부), 충청남도 신규 골재단지 지정 계획³²⁾

» 해수부는 '22년 2월 21일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을 공시함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은 태안군 인근 해상 등 면적 27.19km²로 지정되었으며 광업권 및 바다골재 채취예정지역 등 골재·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채취 및 공급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임
- 해수부는 태안반도 해상 흑도 인근을 신규 골재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서'를 검토하고 있음³³⁾
- 신규 골재단지는 향후 5년간 1,200만 m³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과 해수부가 최종 검토 중임



32) 해양수산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2022.02.21.), <https://www.msp.go.kr/manageplan/plan.do>(2022.03.16. 검색)

33) 태안신문사(2022.03.11.), <http://m.taea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33>(2022.03.16. 검색)

자료: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2022.02.21), <https://www.msp.go.kr/manageplan/plan.do>(2022.03.16. 검색)



5) 석탄

① 중국, 탄가 폭등 속 석탄 증산 추진³⁴⁾³⁵⁾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내 석탄 생산량을 3억 톤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탄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중국은 수입탄 의존도 경감 및 자원 자급력 강화를 위해 석탄 3억 톤 이상 증산 및 6억 2천만 톤 비축 계획을 수립함
- 석탄 증산 규모 중 절반은 신규 탄광 또는 고도화를 거친 탄광에서 생산하고 절반은 노천 및 폐광 탄광에서 생산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음

» 한편, 중국은 2월 말 이후 중국의 일일 석탄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한 1,200만 톤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중국 발전소의 석탄 비축량은 1억 4천만 톤으로 1년 전보다 약 3천만 톤이 늘었으며, 향후에도 석탄 생산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석탄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

34)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2.03.16.),
[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2.03.16. 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2.03.16. 검색))

35) 이코노미스트(2022.03.13.),
[https://economist.co.kr/2022/03/13/chinaFocus/101002022031360000189.html\(2022.03.16. 검색\)](https://economist.co.kr/2022/03/13/chinaFocus/101002022031360000189.html(2022.03.16. 검색))

6) 철광석

① 중국, '25년 철광석 생산량 확대 계획³⁶⁾

» 중국 철강연합회는 국내 철광석 생산량을 '25년까지 3억 7천만 톤, 해외 철광석 생산량을 '25년까지 2억 2천만 톤으로 확대하여 '20년 대비 각각 1억 톤 가량을 확대할 계획임

- 중국 철강연합회는 자국 내 철광석 탐사를 통해 중국산 철광석과 자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해외 광산에서의 생산량을 1억 톤 가량 증산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중국 철강연합회는 중장기 철광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부, 천연자원부, 환경부 등에 해당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연간 10억 톤 이상의 철광석을 소비하며 그중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

36)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2.03.07.),
[https://m.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2.03.11. 검색\)](https://m.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2.03.11. 검색))



7) 기타광석

① 동, 니켈, 아연 등 주요 광물가격은 러시아발 공급쇼크에 따라 상승세를 기록³⁷⁾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 압박 등 러시아산 주요 자원의 공급차질 우려가 심화되면서 비철금속 가격상승 압력이 발생함

 - 3월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등 에너지 수입 금지를 언급했으며, 러시아도 특정 상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 또한 Maersk사 등 3대 메이저 해운사는 러시아에 대한 컨테이너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기동과 니켈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냄
- » 전기동의 경우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재고량이 3월 1주차 기준 7만 1,835톤으로 전주 대비 3.7% 감소하여 빠듯한 수급상황을 나타냄

 - 또한 Southern Copper사의 페루 Cuajone광산이 지역주민들의 시위로 인해 2월 말부터 가동을 중단함
- » 니켈은 러시아의 공급망 차질우려와 빠듯한 수급상황으로 급등세가 나타났으며, 3월 7일 기준 장중 사상 최대인 톤당 5만 5천 달러까지 급등하였음

 - 공식가격은 톤당 4만 2,995달러로 전장 대비 44.3% 상승으로 일일거래 기준 사상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함
 - 런던금속거래소는 러시아발 공급쇼크에 따라 실물 인도를 제한하였으며, 니켈 선물거래를 8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함
 - 3월 2주차 기준 니켈의 LME 재고량은 7만 5,312톤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46주 연속 감소세를 보임
- » 아연의 LME 재고량도 14만 1,100톤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하여 1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빠듯한 수급상황을 나타냄

37)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2.03.14.),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2.03.16. 검색)



8) 목재

①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재펠프로 미세플라스틱 대체 연구 협력 시작³⁸⁾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의 지속적인 이용과 펄프·종이의 친환경 소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1차 목재미래소재 포럼'을 2월 17일에 개최함

- 포럼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물질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현황을 되짚어보고 목재펠프를 대체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셀룰로오스 비드(bead)', '폼포밍(foam-forming)'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소재 개발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 신소재의 주요 특성, 제조 방식에 따른 고려 사항 등이 공유됨
- 또한 세계적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목재 분야의 발전 기회로 삼아, 미래소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38) 국립산림과학원 보도자료(2022.02.18.),

9) 고철

① '22년 1월 기준, 고철 자급률 78.7%까지 하락³⁹⁾

▶ 지난해 85.8%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던 국내 고철 자급률이 올해 1월 78.7% 수준으로 하락함

- 국내 고철 자급률은 '13년부터 '19년까지 연간 74.0%~79.7% 수준을 유지했으나, '20년과 '21년에는 각각 85.1%, 85.8%로 크게 증가하였음
- 특히 작년 1월에는 글로벌 고철 가격의 급등과 국가 간 고철 확보 경쟁으로 인해 국내 고철 자급률이 95.6%에 이를 정도로 높았음
- 그러나 올해 1월에는 국내 구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하고 수입량이 15.3% 증가하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국내 고철 자급도가 하락함
- 또한 국내 고철 자가발생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함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철 가격 상승⁴⁰⁾

▶ 고철 가격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터키 시황단가, 일본 시황단가, 고로 용선원가가 모두 증가함에 따라 국내 고철 가격이 상승함

-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세계 최대 고철 수입시장이자 글로벌 고철 가격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터키 시황단가가 톤당 650달러(터키 HMS 1&2, CFR 기준)를 기록하여 전일 대비 140달러 이상 증가함
- 또한 일본 관동철원협동조합 3월 고철 낙찰가격이 톤당 63,510엔(H2, FAS 기준)을 기록해 전회 대비 7,665엔 증가하였고, 이는 '08년 7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고 액수임
- 터키에 이어 일본 선행지표가 급등한 직후 국내 주요 제강사들은 고철 가격을 인상하였고, 2월 초 설 연휴 이후 3월 10일까지의 평균 인상 폭은 kg당 55원을 기록함

39) 철강금속신문(2022.03.09.),

40) 스크랩와치(2022.03.10.),

- 그러나 선행지표의 증가세에 비하면 고철 인상 폭이 크지 않기에, 과거 패턴을 고려하면 추가 고철 가격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더불어 글로벌 고철 가격의 또 다른 선행지표인 고로 용선원가가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고철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10) 철재

① 제철용 원료탄 가격 상승으로 철강 가격 상승 전망⁴¹⁾⁴²⁾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제철용 원료탄의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이 전망되어 이에 따른 철강 가격 상승이 예상됨
- 제철용 원료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21년 총 3,144만 5천 톤의 제철용 원료탄을 수입하였고, 이 중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량은 16.3%인 511만 8천 톤임
- » 러시아산 제철용 원료탄 수입 차질로 인해, 호주, 캐나다, 모잠비크,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량을 충당해야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공급 부족 가능성이 제기됨
- 올해 초 호주 전역의 폭우로 인해 주요 수출 항구가 운영을 일시 중단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는 호주산 제철용 원료탄의 가격 반등으로 이어진 바 있음
- 최근 호주 폭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러시아산 원료탄의 수요가 호주로 몰리면서 호주산 원료탄 가격은 3월 15일에 톤당 662.75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톤당 200달러 급등한 수치임
- 최근 전력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석탄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 향후 인도의 원료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제철용 원료탄 공급 부족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제철용 원료탄 가격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41) 철강금속신문(2022.03.14), <http://pdf.snmnews.com/PDF/REAL/2022/03/14/PS010314010101001B0001.pdf>(2022.03.14. 검색)

42) 한국철강협회 철강전문지 「철강보」 3월호, p.19~20, [https://www.kosa.or.kr/statistics/KOSAZine/BOOk202203/\(2022.03.14. 검색\)](https://www.kosa.or.kr/statistics/KOSAZine/BOOk202203/(2022.03.14. 검색))



11) 자동차

① '21년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기록⁴³⁾

»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346만 대 생산에 그쳤으나, 글로벌 반도체 대란 등 연 속된 악재 속에서 감소폭을 최소화하면서 전년도에 이어 5위를 유지함

- '21년 세계 자동차 생산은 잦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차질 발생과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재유 행 등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전년 대비 2.0% 증가에 그친 7,978만 대를 기록함
- 중국, 미국, 일본은 거대 내수시장의 이점을 기반으로 생산국 순위도 나란히 1~3위를 유지 한데 반해, 생산 400~500만 대의 4~7위 국가는 코로나19 이후 순위 변동이 심화됨
- '20년 락다운 여파로 6위로 하락했던 인도는 '21년 내수가 회복하면서 4위로 올라섰고, 독 일은 반도체 위기 심화로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6위로 하락함
- 우리나라는 전년도 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 기인한 역기저 효과가 있었지만, 반 도체 수급 부족으로 6년 연속 생산량 감소세를 면치 못하면서 전년에 이어 5위를 유지함

(단위 : 대, %)

2021년 주요 자동차생산국 순위

순위	2020년				2021년			
	국 가	생 산	비중	증감률	국 가	생 산	비중	증감률
1	중국	25,225,000	32.2	-2.0	중국	26,082,000	32.7	3.4
2	미국	8,821,026	11.3	-18.9	미국	9,154,354	11.5	3.8
3	일본	8,067,943	10.3	-16.7	일본	7,846,253	9.8	-2.7
4	독일	3,759,740	4.8	-25.2	인도	4,396,284	5.5	29.6
5	한국	3,506,774	4.5	-11.2	한국	3,462,299	4.3	-1.3
6	인도	3,393,019	4.3	-24.9	독일	3,427,752	4.3	-8.8
7	멕시코	3,158,848	4.0	-20.8	멕시코	3,127,311	3.9	-1.0
8	스페인	2,268,185	2.9	-19.6	브라질	2,248,253	2.8	11.6
9	브라질	2,014,055	2.6	-31.6	스페인	2,098,133	2.6	-7.5
10	러시아	1,444,240	1.8	-15.3	태국	1,685,705	2.1	18.1
	세계 총계	78,250,239	100.0	-15.5	세계 총계	79,784,544	100.0	2.0

43)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2.03.3.), https://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97&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2.03.15. 검색)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2.03.03.), https://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97&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2.03.15. 검색)



12) 잡화

① '22년 1월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한 168억 8,000만 달러, 수입 금액은 1.9% 감소한 106억 7,700만 달러를 기록⁴⁴⁾

- ▶ 일반기계업(+16.7%), 정밀기계업(+0.9%), 금속제품업(+5.2%)의 수출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전기기계업(-20.0%)과 수송기계업(-24.8%)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함
- ▶ '22년도 1월 기계 산업 수입은 수출과는 반대로 일반기계업(-13.7%)과 정밀기계업(-17.9%)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전기기계업(+6.4%)과 수송기계업(+30.3%)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함
- ▶ 3대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 중 일본을 제외한 중국(-12.2%)과 미국(-19.1%)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수입은 중국(+11.5%)을 제외하고 미국(-1.9%)과 일본(-11.9%)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함

(단위: 백만 달러, %)

'22년 1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구분	'22. 1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 산업(합계)	16,880	-12.3	10,677	-1.9
일반기계업	4,501	16.7	3,351	-13.7
전기기계업	2,800	-20.0	1,982	6.4
정밀기계업	1,519	0.9	2,155	-17.9
수송기계업	7,189	-24.8	2,593	30.3
조선	695	-79.8	349	79.8
금속제품업	871	5.2	595	14.1

44)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3월호(2022.03.25.),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2.3.29. 검색\)](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2.3.29. 검색))

자료: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12월호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유류·화학공업생산품

① 3월 2주차 국제 원유시장, Brent, WTI, Dubai, Oman 유가 모두 상승⁴⁵⁾

»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Brent, WTI, Dubai, Oman 유가 주간 평균 가격은 전주 (2월 28일~3월 4일) 대비 배럴당 각각 8.43, 7.83, 16.62, 16.54달러 상승

(단위: US\$/bbl)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주간 평균 가격			일일 가격			
	3월 1주 (2.28~3.4)	3월 2주 (3.7~3.10)	전주 대비	3월 7일(월)	3월 8일(화)	3월 9일(수)	3월 10일(목)
Brent	109.49	117.92	+8.43	123.21	127.98	111.14	109.33
WTI	106.62	114.45	+7.83	119.40	123.70	108.70	106.02
Dubai	106.22	122.84	+16.62	125.19	122.99	127.86	115.33
Oman	106.37	122.91	+16.54	125.27	123.05	127.92	115.38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유가(2022.03.11.),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3.14. 검색)

② 금호석유화학, ESG비전 탄소중립 성장안 청사진 수립⁴⁶⁾

»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발표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부문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함

- 금호석유화학 ESG경영활동의 싹크탱크인 ESG위원회는 작년 ESG비전 발표 후 곧바로 ESG경영관리·안전환경 부서 등 실무진과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구상해왔으며, 중장기 탄소중립 성장안을 5대 중점 전략으로 정리함
- 5대 전략은 ‘클린에너지 전환 기반 전 사업장 감축 가속화’,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친환경 바이오 기반 원료로의 전환’, ‘Recycling 확대’, ‘탄소자산관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반 마련’임
- 이를 기반으로 ‘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약 29%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기준 23%의 탄소배출 저감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는 ‘35년에는 증가분보다 감축량이 많아지는 탄소중립 성장의 원년으로 삼아 ‘50년 탄소중립 성장을 목표로 추진함
- 저감 활동은 5대 전략에 맞춰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부터 시작, 에너지발전사업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기술 적용과 연료 전환, 화학 사업의 바이오실리카 기반 합성고무 등 친환경 원료 비중 확대 및 재활용 스티렌(RSM, Recycled Styrene Monomer) 등 열분해를 통한 폐기물 재활용화 등을 진행함
- 또한, 제품 전 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분석을 통한 탄소발생단계별 탄소자산 관리 활동을 디지털화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즉각적인 소통과 협력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45)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유가 (2022.03.11.),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3.14. 검색)

46)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 (2022.02.24.),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263(2022.03.14. 검색)

① 롯데케미칼, 고유가 및 러시아 리스크 대비한 원료 다변화 전략 주목⁴⁸⁾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원료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온 롯데케미칼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석유화학업계는 원유를 정제한 나프타를 원료로 분해설비(NCC)에 투입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은 원유를 정제해서 얻는 나프타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세일가스 등 다른 원료를 활용해 에틸렌 생산설비를 운영하는 등 비중을 높여옴
- 롯데케미칼 여수·대산공장은 1,400억 원을 투입해 LPG 사용량을 늘리는 시설 개량을 진행하는 등 나프타 사용 비중을 줄이는 추세이며, 여수공장과 대산공장의 LPG 원료 투입 비중을 현재 32%, 12% 수준에서 연말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임
-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나프타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며, 유가가 오를수록 주요 석유화학업계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보여 나프타 의존도를 낮출수록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21년 우리나라의 나프타 수입량은 2,900만 톤(약 189억 원)이며, 이 중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나프타 교역액이 가장 높은 23.4%를 기록하여 러시아를 향한 경제제재 조치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함

48)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 (2022.02.25.),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265(2022.03.14. 검색)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2. 3. 31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